

# 未來學的 側面에서 본 새 共同体

## 조 문 부

### — 目 次 —

- I 序 論
- II 未來學 심포지움과 未來豫測의 問題
- III 西紀 2,000年의 아색아와 産業化 以後의 社會
- IV 現代 青年의 傾向과 새 共同体의 模索
- V 새 共同体의 精神의 支柱
- VI 새 共同体가 解決하여야 할 問題
- VII 結 論

### I 序 論

現代는 激變의 時代다. 이 激變의 度는 加速化하여 왔다. 앞으로 올 數十年後의 未來는 더욱 加速的으로 急變할 것이다. 영국의 碩學 트리벨언 (G.M. Trevelyan) 은 現世界의 變遷速度를 古代의 그것에 비해 約 百倍로 보았지만 오히려 이를 數百倍로 보는 見解가 보다 나은것 같다 오늘날 實로 우리들 주변에는 政治, 人種, 世代, 性, 科學技術, 女權, 價値, 大衆革命 등이 同時的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結果로 우리는 옛날로부터의 斷絶과 乖離를 切感할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懸隔한 隔差도 마치 時代의 質的 變化인양 現代人을 當황케 하고 있다. 이미 先進社會는 벨 (Daniel Bell) 이 말하는 「産業化以後社會」 보울딩 (Kenneth Boulding) 이 膾炙하는 「文明後期時代」로 突入하는 느낌을 주고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變化가 未來에 이르러서는 그 어떠한 樣狀을 나타낼지 豫測하기 困難하다. 이렇게 激變하는 現世紀를 우리는 어떻게 表現하면 좋을까? 웰스(H. G. Wells)는 그것을 「混亂의 世紀」 오웬(W. H. Auden)은 「不安의 時代」 케스틀러(Arther Koestler)는 「갈망의 世紀」 스토크(Pitrim Sorokin)은 「危機의 時代」 알렉산더(Franz Alexander)는 「不合理의 混濁」 만하임(Karl Mannheim)은 「再建의 黎明期」란 말로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者는 이를 「革命時代」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革命的 激動期에 處한 우리 한국은 傳統社會로부터의 脫皮, 近代化, 超現代化의 三重課題를 안고 나갈 때 우선 未來와 連結 지을 수 있는 길을 擇하여야 할 것이다.

未來에 있어서, 그것도 不過 2,30年 後의 未來에 우리 人類은 어떠한 生活形態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는 共同體는 어떠한 것이며 그 機能은 어떠한 것인가?를 研究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는데 하나의 前提가 될 것이다.

未來를 豫測한다는 것은 困難한 問題이나 不可能한 問題는 아니다. 科學技術의 發達은 이 問題의 解決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人類은 戰爭과 같은 未然豫測의 變動 變數를 最大限 抑制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未來學심포지움에서나 토인비(A. J. Toynbee)도 이 노력이 可能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up>1)</sup> 이 戰爭(核戰爭)외에도 人類의 全滅을 위협하는 것으로 「토인비」는 公害問題와 人口의 暴發을 들고 있는데 이에 對해서도 人類은 온갖 努力을 다하여 이를 豫防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地球上의 人類生活를 繼續할 때 社會的 動物인 人間은 어떤 集團體를 形成할 것인가? 그 集團體가 새로운 것인가? 「토인비」는 이에 對해서도 人類의 未來에 있어서의 새 共同體는 世界國家建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思想的 基底를 이룰 것은 宗教도 아니요, 政治理念도 아닌 現實의 必要性 때문이라고 한다. 그 國家形態는 聯邦制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새 共同體는 그 機能이 달라져서 精神革命을 이루도록 하고 새로운 價値判斷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果然 世界國家는 建設될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建設될까?

## Ⅱ 未來學 심포지움과 未來豫測의 問題

(1) 日本의 이름있는 行政學者 蠟山 政道氏는 1965년에 이미 朝日新聞에 〈新日本の 비존〉이란 글을 써 日本의 비존을 提示한 일이 있었고 林雄二郎氏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비존 研討會를 만들어 〈20年 後의 日本〉이란 글을 1966년에 發表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늘 비존을 찾으려 한다. 비존 있는 民族은 興하고 비존 없는 民族은 亡한다고 하여 비존 有無를 民族生死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을만큼 비존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그러나 비존을 갖는다는 問題는 그리 容易한 問題가 아니다. 비존은 過去의 傳統속에서 固有의 精神을 찾고 이 精神이 現在의 現實을 거쳐 未來의 進路를 明示하는 것이라 할 때 비존의 確立問題는 未來의 研究 如何가 決定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비존은 未來志向的인 것이다. 이 未

1) Arnold J. Toynbee 「Surviving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1. 金字鐘譯 P. 283

來志向的인 비전에 立脚하여 現在의 現實을 批判하고 이 現實을 비전에 따라 未來의 理想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은 未來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고 未來와 遊離해서 定立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民族에게는 確固한 비전이 必要하다. 이 비전을 確立하기 爲하여 우리 民族의 未來를 알아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에 韓國未來學會가 誕生했다.

우리 民族의 未來는 곧 世界人類의 未來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기 때문에 먼저 未來學 一般에 關한 研究가 必要할 것이다.

(2) 日本에서는 1967년부터 約 1年동안 3회에 걸친 未來學 심포지움이 開催되었었다.<sup>2)</sup>

첫번째는 1967年 7月 日本 科學技術聯盟 主權의 未來學 심포지움이며 두번째는 同年 9月 日本 經濟研究센타가 주최하는 것이었고 세번째는 1968年 7月에 亦是 日本 科學技術連盟 주최의 심포지움이였다. 첫번째와 세번째는 科學者와 技術者가 中心이 되었으며 두번째 심포지움은 「2,000年の 世界」를 主題로 하는 國際會議였는데 이 會議는 美國, 英國, 佛蘭西, 폴란드等 國家에서도 專門家가 參加하고 「世界와 아시아의 將來」「産業化 以後의 社會」等 많은 報告가 提出되었고 1968年の 會議는 「科學技術과 經濟會」라는 名稱을 가진 會였었는데 여기에서 「西紀 2,000年の Communication」「情報化 社會」等 研究 報告가 있었는데 「世界와 아시아의 將來」에 있어서는 主로 將來의 經濟發展을 展望하고 있으며 「産業化 以後의 社會」에 있어서는 未來社會의 패턴을 豫測하고 있으며 「西紀 2,000年の Communication」<sup>3)</sup>에 있어서는 通信等 西紀 2,000年에 있을 世界人類의 意思疏通 問題를 다루고 있으며 「情報化 社會」<sup>4)</sup>에 있어서는 西紀 2,000年의 民主化 社會에 있어서의 情報處理의 必要성과 情報社會의 樣狀을 말하고 있다. 이들 심포지움에 나타난 結果報告는 그 어느 것이나 正確한 데이터(Data)에 依하여 未來를 豫測하고 있다

(3) 그러면 未來豫測은 可能하며 可能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人間은 想像力을 갖고 있는 未來志向의 動物이라는 것이다. 空想科學 小說(SF)에 나타나는 「타임머신」(Time Machine)은 時間속을 旅行하는 空想的機械를 意味하는 것인데 이는 웰스(H.G. Wells)가 1896년에 처음으로 쓴 小說인데 여기에서 그는 時間을 四次元이라고 하고 人間은 이 〈타임머신〉을 타서 아무리 오랜 過去나 아무리 먼 未來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sup>5)</sup> 이는 人間이 過去의 記憶을 되살리는 記憶力과 想像力을 합쳐 過去로 갈 수도 있고 未

2) 岸田 純之助 「Perspectives on post-Industrial Society」 Japan-America Forum Vol. 15 No. 2 1969. P. 16

3) Nicholas Johnson 「Perspectives on post-Industrial Society」 Communication and The years 2,000., Japan-America Forum Vol. 15 No. 1 1969. P. 15

4) 林雄二郎 「The Information-Centered Society., Ibid., P. 25

5) 香山健一著 「未來學」 崔林譯 玄岩社刊 1971, P. 35

來의 空想力을 通하여 未來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타임 머신>은 다음 작가 퓨우기(M. A. Phewgy)도 다루고 있는데 그는 精神受信器(Psycho-Phone)라 불리는 이어폰과 같은 것을 귀에 갖다 대면 精神活動만이 時間內 旅行을 하여 想像力을 通하여 未來를 自由롭게 往來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던 人間은 어떻게 하여 이 四次元의 時間內 旅行을 할 수 있는가?

<카시이러>에 依하면 人間은 심벌(Symbol)을 操作하는 動物이라는 것이다.<sup>7)</sup>

이어 그는 「理性이라는 말은 人間の 文化生活의 豊富하고도 多様な 形態를 理解시키기에는 매우 不完全한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形態는 심벌적 形態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生物이 環境에 順應하기 爲하여 感受系와 反應系를 갖고 있는데 對하여 人間은 이 外에 象徴系(Symbolic system)이라는 第3의 系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人間 特有的의 差異點이라 한다. 이러한 象徴系에 依하여 人間은 新次元의 實際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코프스키>는 人間은 本來的으로 未來志向의 動物이라고 하였다.<sup>8)</sup> 人間은 생각하는 超精密한 電子 두뇌를 가진 特殊生物로써 未來를 志向하여 新歷史를 엮어 나가는 것이다. 未來를 志向하여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는 過程이 無限한 試行錯誤의 連續일런지 몰라도 可能性을 向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은 非可逆的인 時間의 흐름속에서 人間の 가치와 尊嚴에 眞實로 어울리는 未來를 繼續創造해 나가는 것이다.<sup>9)</sup>

以上과 같은 人間の 主觀的 性質이 未來豫測을 可能케 할뿐만 아니라 人間이 만들어 내는 客觀的 環境이 未來豫測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우선 人間の 技術이 未來를 形成해 나간다. 技術이 未來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어떤 變化를 일으킬 것인가라는 問題는 막스 主義의 傳統에서 말하는 必然性의 問題는 勿論 아니다. 하바드 大學 技術社會 研究部長 <엠 마누엘. G. 메스틴>(Emmanuel G. Mesthene)의 主張에 依하면 新 技術의 出現과 採用은 人間行動에 새로운 可能性을 만들어 내고 人間이 選擇하는 道程을 變化시킴에 따라서 社會의 組織이나 가치관의 變化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必然的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確率이 높다는 것이다<sup>10)</sup>

다음으로 經濟成長의 豫測을 通하여 未來豫測이 可能하다 할 것이다. 國家의 經濟政策 人口의 增加 世界의 經濟動向등을 土臺로 經濟成長의 豫測이 可能할 것이며 이러한 經濟成長이 未

6) Ibid., PP. 37~38

7) Ibid., P. 43

8) Ibid., P. 47

9) Ibid., PP. 59~60

10) Emmanuel G. Mesthene 「How Technology will Shape the Future. Japan-America Forum Vol. 15 No. 31969. P. 17

來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며 이로 因하여 變化되는 文化社會가 어떻게 變化되리라는 것을 豫測하기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sup>11)</sup>

다만 이러한 未來豫測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前提가 必要하다. 卽 그 하나는 重大한 世界大戰이나 公황에 依해서 世界經濟의 發展過程이 中斷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各 國家의 政府當局이 모든 國民의 福祉向上과 經濟效率을 調和시킨 賢明한 經濟政策을 繼續 追求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政治에는 暴力이 決定的인 重要性을 갖기 때문에 暴力에 依한 變動은 豫定을 뒤엎는 수가 있어서 未來豫測을 困難케 하는 것이다.

未來豫測은 컴퓨터에 依해서도 可能하다. 가령 國際政治上의 變動을 豫測하려면 要因分析(factor-analysis)를 通해서 한다. 卽 한 나라가 가진 特性을 나타내는 標識들(人口, 資源, 政治組織, 生産力 輸出量, 文化等)과 그 國家의 對外行動을 表示하는 標識들(國際機關 參與度, U.N에서의 投票 戰爭等)을 가지고 模型을 만들고 兩系列사이의 相關性(Linkage)을 찾는다.<sup>13)</sup> 가령 經濟的으로 낮은 生産力을 가진 것이 對外政策때런에 確實한 影響을 끼친다고 發見되면 모든 나라들이 後進性을 脫皮할 때 어떻게 行動할 것인가가 豫見된다.

## Ⅱ 西紀 2,000年의 아시아와 產業以後의 社會

(1) 西紀2,000年이라면 지금부터 27年後이고, 지금 20代의 青年이 40~50代로써 社會의 中堅的 地位에 있을 時代이다. 따라서 20代의 青年들에게는 2,000年代의 未來를 豫測한다는 것은 大端히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일 것이다. 1967年 9月 日本 經濟研究 센터가 주최하는 國際會議에서 日本의 大來 佐武郎氏等 三氏에 依한 「世界와 아시아의 將來」에 對한 報告에서는 1970年 1980年 1990年 2000年의 各 年次別로 아시아 各國의 經濟成長을 豫測하고 있다.<sup>14)</sup>

이에 依하면 現在 나타나고 있는 傾向 卽 從來의 古典의 東西對立이라고 하는 패턴(Pattern)이 이미 適用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點 아시아 地域間 諸國이 經濟的 結合關係의 強化現象으로 보아 地域結合을 이룰 可能性이 보이는 點 U.N關係 諸機關의 貢獻等을 前提로 하고 또 아시아 地域에 있어서도 人口增加는 依然 繼續되고 있다 해도 2000年을 目標 年次로 하는 경우 人口增加의 壓力으로부터 오는 食糧 危機를 모면할 수 있다는 見地에서 經濟成長의 豫測을 行

11) 岸田 純之助. Ibid., P. 17

12) Ibid., P. 20

13) R. J. Rummel International Pattern and nation Profile Delineation, Englewood Cliffs, N. I. Prentice Hall, 1968 PP. 158~193

14) 岸田純之助; Ibid., PP. 16~17

하고 있다. 人口, 食糧 問題의 解決은 아시아 地域의 人口增加率의 漸進的 低下와 食糧 增産의 潛在的 可能性에 依하여 이루어진다고 豫想하고 있다.

食糧問題에 對해서 樂觀的인 見解를 取하고 있는 理由로서는 ① 1960年代의 後半부터 아시아 各國의 開發計劃의 重点이 農業 特히 食糧增産에 置重되고 있는 點 ② 開發計劃의 目標達成을 可能케 하는 農業 技術 改革의 導入 及 制度的 刺戟에 對한 各國의 意慾的 遂行姿勢 ③ 先進 諸國이 世界的 規模로 食糧 援助 體制를 갖추고 同時에 低開發國의 食糧增産을 爲하여 經濟技術協力이 積極的으로 期待되는 點을 들고 있다.

이러한 豫測을 함에 있어서는 Case I Case II 라는 두개의 경우에 對해서의 計算을 했다.

Case I 에서는 아시아 諸國의 過去의 實績에 根據해서 將來를 展望했고 Case II 에서는 各國의 開發計劃 目標達成을 考慮에 넣어서 將來를 展望했다. 이 計算의 結果 西紀 2000年의 아시아 開發途上國 10個國(越盟, 北韓, 몽고, 네팔, 西세모아 中共을 除外)의 國內 總 生産의 合計는 約 6,779~7,721億弗이나 된다. 即 2000年의 아시아 低開發地域의 國內 總生産의 規模는 現在의 EEG 水準에 맞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아시아 後進地域의 1人當 所得은 1960年의 水準이 105弗 1970년에는 119~126弗, 2000년에는 370~421弗의 水準에 達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2000年의 目標年次에 1人當 所得이 1,000弗에 達하고 先進國 그룹에 새로이 끼게 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의 最上位 諸國의 그룹은 6,500弗에 達할 日本을 除外하고 自由中國, 홍콩, 韓國, 말레지아, 싱가포르의 5個國이며 1人當 所得이 500~1,000弗의 範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上中位 그룹은 이란과 타이가 될 것이다.<sup>15)</sup>

이러한 豫測은 2000年의 世界를 豫測한 <하야만, 칸>의 數字와 그리 큰 差異는 없다. <하야만, 칸> 2000年에 있어서의 經濟社會를 (1) 産業化以前 社會(1人當 年所得 50~200弗) (2) 部分的인 産業化 或은 過渡的 社會(1人當 年所得 200~600弗) (3) 産業化 社會(1人當 年所得 600~1,500弗) (4) 大衆消費 乃至 發展된 産業化 社會(1人當 1,500~4,000弗) (5) 産業化以後의 社會(1人當 4,000~20,000弗)의 5段階로 分類하고 世界의 各國을 各各의 分類 속에 나누어 놓고 있다. 美國, 日本은 勿論 明白한 産業化 以後의 社會속에 包含되어 있고 아시아 諸國에 있어서도 大衆消費 時代로 들어가 있는 國家는 自由中國, 南北韓, 홍콩, 말레지아 싱가포르라고 豫測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의 豫測과 大同小異하다. 産業化 社會에 들어가 있는 國家로써 南北베트남, 타이, 필리핀, 이란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上述의 報告와 거의 맞아 들어간다.<sup>16)</sup>

## (2) 産業化 以後의 社會

坂本二郎氏は「21世紀의 日本經濟」라는 題目의 研究報告에서 産業化 以後라는 말 代身 第3

15) Ibid., P.17

16) Ibid., P.18

次 文明으로 突入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坂本氏는 日本이 언제 이 第3次 文明時代로 突入하며 第3次 文明時代의 特徵의 樣相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7)</sup> 第3次 産業人口의 數字가 全 産業人口의 50%를 超過하는 時期를 1975年에서 1985年으로 보고 勤勞所得者의 家計中 雜費가 50%를 超過하는 時期는 1985年에서 1990年이 될 것이라 보며 産業年令 人口의 學力 構造中에서 高等教育 終了者가 50%를 超過하는 것은 1990年이라고 본다.

産業化 以後의 社會가 이루어진 國家의 共通된 社會的 現象은 다니엘. 벨 (Daniel Bell)의 「産業化 以後의 社會」에 依하면 ① 人口의 都市 集中이 심하다. ② 大規模의 마스프로 教育의 實施 ③ 科學的 知識이나 技術을 必要로 하는 일에 從事하는 者에게 높은 地位와 賃金이 支拂된다고 하고 있다. ①은 관습이나 生活樣式 或은 科學技術을 끊임 없이 改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迅速히 넓히는 大衆 “通信網”을 만드는데 이르게 되고 ②와 ③은 新鮮하고도 有能한 人材를 動員시키는 것이 可能하다. 그래서 高密度 社會가 이루어지고 國民總生産이 높아 經濟成長이 매우 빠른 高度成長國이 될 것이고 日本의 경우 1967年에는 大學教育을 받는 사람은 學令 人口의 1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985년에는 30%以上이 될 것이라고 한다. 높은 學力을 갖는다는 것이 職場을 選擇할 수 있는 可能性을 넓히는 不可缺의 條件이라고 一般的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이러한 傾向을 낳게 한 큰 理由이며 이는 高密度 社會가 招來한 自然的 結果이지만 이 또한 大規模의 마스프로 教育의 實施라고 하는 産業化 以後의 社會的 現象이다.<sup>18)</sup>

그리고 知識의 周圍에 組織되는 社會 인텔렉추얼 테크놀로지 (Intellectual, technology)에 精通한 사람들이 支配階級을 이루는 社會가 될 것이다.<sup>19)</sup>

勿論 이러한 社會는 都市問題 公害問題等과 같은 附隨的 弊害가 따르게 되고 高密度 社會가 高度成長을 繼續하기 爲해서는 이에 對한 對策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以外에 일어날 問題로써는 「레저 (leisure) 社會」가 될 可能性과 이에 따르는 問題点이다. 産業化 以後의 社會에서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高度의 能力을 가진 小數의 사람들 뿐이며 平均的 能力을 가진 사람은 다음 休日の 計劃을 생각하며 無爲의 快樂生活을 追求하게 될 때 「慾望을 強調하고」 「消費的이고」 「刺激을 求하고」 하는 폐단을 낳게 된다. 이러한 폐단에 對處하기 爲한 새로운 倫理나 制度가 必要하게 되며 지금부터 2000年代를 爲한 教育을 準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先進 工業 諸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大學生들이 일으키는 메모는 今後의 社會에 對한 하나의 念慮를 나타내는 것이다. 美國의 靑少年 非行問題도 多分히 이 一環일 것이다.

17) Ibid., P. 18

18) Ibid., P. 19

19) Ibid., P. 20

#### Ⅳ 現代 青年의 傾向과 새 共同의 模索

(1) 美國에 있어서의 現代青年의 代表的 傾向을 들어보면 뉴, 레프트와 히피에 依해서 나타나는 것 들이다.<sup>20)</sup>

오늘날의 青年은 現代(modern 世代)를 兩親으로 하여 生育된 最初의 世代로써 이를 일컬어 「超 現代 世代」라고 한다면 이들은 最初의 「超 現代 世代」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이들 超 現代 世代들은 끊임 없이 變化하는 Process속에 몸을 두어 完成이라든가 固定이라든가 하는데서부터 늘 自由이고 歷史적으로 豫測不可能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未來에 對해서 心理적으로 變化 自在한 姿勢를 取하고 있다. 그들은 變化 無雙한 오늘의 社會에서 行動上의 設定 目標라든가 一貫性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나 「패턴」即 事物에 對處하는 姿勢의 便이 이들의 共通點이 될 可能性이 많다.<sup>22)</sup>

그래서 이들은 自己 스스로를 무엇인가 어떤 既成組織의 一部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世代에 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보다 強하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集團的 一體感은 그들 自身の 그룹 또는 運動에 對한 것이다.<sup>23)</sup>

이들의 對人關係는 榜圖主義를 同伴하는 人格主義이다. 적은 人員으로 이루어진 그룹 구성원 사이에 있어서 親密 親愛의 相互 信賴 關係를 이룩하려는 意慾이 極히 旺盛하고 人間生活의 價値를 決定하는 最後의 基準은 人間關係의 實로써 他人과의 사이에 1對1의 對等한 人間關係를 形成하지 않은 것은 最大의 罪惡으로 보며 策略이나 權力關係 地位身分上의 上下關係 抑壓 支配等 客觀化 되고 專門化된 착취적인 人間關係를 極히 排擊하는 人格主義인 것이다.<sup>24)</sup>

그래서 이들은 비록 自己와 意見이 對立되는 사람을 相對로 하는 경우에는 論爭點에 對해서 充分히 討論이 되도록 親密한 對話를 가질 것을 目標로 한다. 萬一 對立된 意見을 갖는 사람은 地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이와 對話를 가질려고 하며 이 對話를 拒否할 때는 이들은 매우 격분하고 가끔 示威行動까지도 한다. 더욱이 超 現代 世代의 青年들 間에는 親交나 사랑의 成立을 妨害할만한 積極性的 缺如를 個人的 罪惡感의 根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 青年 男女들에게는 精神的 抑制라든가 禁慾들을 超克해서 그런 것을 훨씬 가치 있다고 보는 肉體的 感情表出이

20) Kenneth Keniston: Dr. Keniston's book young Radicals: notes on Committed youth., Japan America Forum, Vol. 14 No. 12 1968 P.15

21) Ibid., P. 15

22) Ibid., P. 16

23) Ibid., P. 17

24) Ibid., P. 18



나 性行爲의 自由 親交를 成立시킬 能力, 人生을 享樂시킬 能力 등을 造成하는 일이 보다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또 이들 超보던 世代의 靑年들은 個人的으로나 組織的으로 包容의 일려는 傾向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主義나 人種의 差異 등은 無視하여 그 어느 것이나 다 公平하게 귀를 기울인다. 또 이들은 단지 「아카데미한 것」에 對해서는 全員 異구 同聲으로 反發한다.<sup>26)</sup> 그러나 이 反發은 知識의 適否 그 應用의 可否, 그 人間의 意義에 關한 그들의 幅넓은 主張에 基한 意思表示의 하나이다.

(2) 未來에 있어서의 새 共同體를 模索하는 問題는 두가지 點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公式的 組織體에 對한 點이고 다른 하나는 非公式的 組織體에 對한 點에서이다. 여기에서 公式的 組織體에 關하여는 既成 組織體가 없어지고 새 組織體가 생겨날 것인가? 아니면 그 活動面만 달라질 것인가? 를 생각해 본다. 여기에서 公式的 組織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國際機構로서 U.N과 같은 一般的 機構와 地域團體, 特殊目的의 機構들인데 國際社會의 一般的 秩序維持를 爲한 一般的 機構는 2000年代까지 存續하여 그 機能이 보다 積極化 될 것이다. 個別的 特殊機構는 科學技術의 發達, 社會的 가치觀의 變모 등에 依하여 새로운 組織體가 나타날 것이다. 國內機構로써 代表的인 組織形態가 될 國家는 依然 存續하고 그 機能이 보다 積極化 하여 行政府主導型의 機能이 될 것이다. 1967年 9月에 있었던 日本 科學技術連盟 주최의 未來學 심포지움에서도 國聯關係 諸機關의 貢獻과 國家의 開發計劃의 繼續인 成功이 있을 것을 前提하고 있다.<sup>27)</sup>

이에 對하여 國內 組織體中에서도 國家가 制度的으로 뒤받침 하는 것이나 民間團體나 한것 없이 技術의 發達 메스콤의 發達, 勤勞環境 및 社會環境, 倫理 등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組織體인 共同體가 生成發展할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は 이를 더욱 研究開發하여 人類에게 奉仕할 수 있도록 하는 國際的 國內的 새 共同體를 生成 發達시킬 것이요 科學技術의 發達에 따르는 社會的 弊端을 規制하기 爲한 國際的 國內的 새 共同體의 生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스콤의 發達は 國內社會에 있어서는 地域의 隔差를 縮少시킬 것이요, 國際社會에 있어서는 各 國家間의 理解를 增進시킬 것이다. 따라서 UN과 같은 國際的 組織은 아직도 殘存할 可能性이 있는 國際紛爭의 原因이 되는 事態의 惡化를 豫防할 수 있는 對策을 세울 뿐만 아니라 世界의 核戰爭을 豫防하기 爲하여도 國際間에 努力할 것이다. 勞動手段과 勞動環境의 變化는 勤勞者들에게 많은 時間的 餘有를 갖게 하므로써 餘暇 利用의 問題가 일어나 政府나 勞働者 團體들 스스로가 어떻게 餘暇를 善用하도록 할 것이냐에 對하여 腐心할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데니

25) Ibid., P. 19

26) Ibid., P. 22

27) 岸田純之助 Ibid., P. 17

스 개바)가 「科學技術의 進歩에 依한 人間과 社會의 開發」과 「2,000年の 世界」라는 主題下의 國際會議의 報告에도 나타나 있다.<sup>28)</sup> 社會環境 및 倫理의 變化에 따라 이의 長点を 增進시키기 爲한 積極的 組織體와 이의 短점을 豫防하기 爲한 消極的 組織體가 生成할 것이다. 現在와 未來의 共同體의 差異點은 多元化가 一元化로 異質的인 것이 固質的인 것으로 變化할 可能性이 많다. 急變化하는 社會에 對한 不安이 依然 存在하여 靑年들의 反省的 反抗的 共同體가 생겨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爲하여도 未來學의 發達과 未來의 準備를 爲한 教育이 必要한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새 共同體에 對하여 概括的으로 豫想할 수 있지만 이中 未來의 全人類가 模索하는 새로운 共同體에 對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世界는 하나로 統合될 수 있을까? 科學技術의 飛躍的 發展은 世界를 하나의 작은 「地球村」으로 만들고 있다.<sup>29)</sup>

이제 世界人類는 四海同胞라는 意識이 높아 간다. 各 民族間의 異質性 相異性보다 同質性 近似性이 顯著히 나타났다. 人類는 여러개의 서로 相容될 수 없는 異質分子들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有機體로 共同運命을 지니고 있음을 認知하게 됐다. 이제 人類는 「하나의 世界」를 志向하여 그 方向으로 歷史潮流의 求心點이 集結되고 있다.

옛날에 「알렉산더」大王과 「징키스칸」이 武力으로 求했었고 로마가 보편자 連법으로 실현하려 했던, 또 「난테」와 「스노자」, 그리고 「윌리엄. 펜」이 꿈꾸던 單一世界가 科學技術의 發達에 依하여 이루어질 날이 目前에 다달오는 느낌이 있다.<sup>30)</sup>

「하나의 世界」가 이루어지는 統合過程에 있어서 問題는 許多히 남아 있다. 그것은 우선 傳統的 文化의 價値觀의 차이에 依해서 西歐社會와 非 西歐社會는 相異하다 科學技術의 發達이 如何히 해서 이 精神的 靚(Cap)을 메꾸어 주느냐가 問題이고 歐美 陣營과 共產圈이 이데올로기의 對立의 次元을 如何히 克服하느냐는 問題는 統合過程에서 가장 克服하기 힘든 現實的 難問題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들은 人類들 自身이 相互生殘을 爲해서 不可避하게 相互互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 <토인비> (A. J. Toynbee)는 政治面에서의 遠心的 傾向은 未來의 科學技術面에 있어서의 求心的 傾向과는 全然 反對方向이지만 科學技術面이 훨씬 強하기 때문에 世界는 統合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sup>31)</sup>

U, N과 같은 國際機構가 將來의 世界國家의 總體라고 볼 경우 現在의 U, N機構의 重大한 缺陷은 行政機關 (警察力等)이 弱體라는 것과 財源이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U, N은 그 나름대

28) Ibid., P. 20

29) 李元실著 「革命時의 未來觀」 미네르바社 1971, P. 213

30) 30) Ibid., P. 214

31) Arnold. J. Toynbee, Surviving the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1, 金字鐘譯 P. 286.

로 缺陷을 補充해 나갈 것이며<sup>32)</sup> 몇 개의 地域統合體가 形成되어 나가고 이 過程이 지나 몇 개의 地域統合體가 再統合되어 世界國家가 統合 形成되리라는 것이다.<sup>33)</sup>

이 世界國家의 形態는 스위스, 美國과 같은 聯邦國家의 形態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世界에 있는 모든 主權獨立國家를 하나로 뭉쳐 世界聯邦을 만드는 過程에서 組織 또는 기술상의 障礙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sup>34)</sup>

그리고 經濟體制에 있어서 分權의 自由經濟 體制와 集權의 計劃經濟體制는 各各 結함을 露呈하여 이들의 結함을 是正하여가는 過程에서 커다란 變모를 이룩했다. 自由經濟는 計劃化를 導入하고 있으며 計劃經濟는 自由化를 導入하고 있다. 이러한 試行錯誤를 通해서 兩經濟體制는 事實上 다양한 混合經濟體制에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現象은 人구의 爆發로 因한 飢餓을 모면하기 爲한 產業 經濟政策이 이데올로기를 超越하여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V 새로운 共同体의 精神的 支柱

(1) 오늘날까지 人間生活의 精神的 基準인 主義와 思想은 많은 變化를 거쳐 왔다.

中世의 宗教的 思想 18世紀의 絕對君主主義 19世紀의 市民的 自由主義 個人主義, 20世紀의 福利主義로 變遷하여 왔는데 이제 이것이 다 反省 批判을 받아 새로운 思想과 理念을 模索하여 나갈 때 그것이 博愛主義나 協同主義나 하고 있다. 그러나 이 博愛主義 協同主義가 果然 未來의 精神的 支柱인가에 對하여는 疑問의 餘地가 있다. 토인비 (A. L. Toynbee) 는 「未來를 산다 (Surviving the Future)」라는 그의 著書에서 “2000년까지의 世界는 더욱 非人間的인 것이 될 可能性을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6)</sup> 그러면서 또한 그는 “匹紀 2000年代에는 포악한 獨裁者에 依해서 結束되고 平和가 維持되고 있는 世界를 想像할 수가 있습니다…… 自己 絶滅과 世界 獨裁制 中間의 길을 發見하는 것은 당신들 現在의 떨어져나가는 젊은 이들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人類의 將來에 關해 樂觀主義者라고 하고 있다.<sup>37)</sup> 그리고 遺傳者의 造作에 依하여 新種의 人間을 만들어내고 人間性을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토인비의 유토피아 思想을 一考하면 토인비는 「컴퓨터피아(Computopia)」를 計算

32) Ibid., PP. 279~280.

33) Ibid., PP. 283~284.

34) Ibid., 金字鐘譯「讀 未來를 산다」P. 112.

35) 青山健一著「未來學」崔 林譯 玄岩社刊 1971. P. 191.

36) Arnold, J, ToynbeeIbid., P. 222

37) Ibid., P. 224.

器에 依해서 管理되고 支配되는 未來의 理想世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토인비는 現代를 不確定과 不安의 時代라고 하며 이러한 時代에 사는 우리 人類의 갈 길은 過去에의 回歸도 아니며 未來에는 豫想不可의 急變만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토피아(Utopia)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無用하다고 하고 있다.<sup>38)</sup> 그러나 世界歷史의 다음 局面에서 우리들은 權威主義的 世界政府에 服從하게 될 것이며 이의 宣傳을 爲해 權威主義的 世界政府를 칭찬하는 유토피아가 그려질 것이라는 것이다.

未來의 世界國家는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宗教에 鼓舞된 無慈悲하고 能率의이고 狂信的인 小數者가 其他의 多數者를 支配하는 形態가 될 것이다. 그리고 世界的 規模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宗教가 일어나는 것을 想像할 수 있으며 그 宗教가 어떤 것인지는 想像할 수 없더라도 그 教義가 어떤 精神의 가치보다도 法과 秩序를 우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39)</sup>

未來의 世界 獨裁者는 컴퓨터(Computer)에 依해서 그의 世界國家를 管理支配할 것이고 유순한 人間으로 人種改良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世界國家의 形成過程에서 내쇼날리즘(Nationalism)에 依한 政治的 遠心の 傾向이 있기는 하지만 現代의 技術面에 있어서의 求心の 傾向이 보다 強하기 때문에 내쇼날리즘의 저항을 넘어서 政治的으로 統合되어 가리라는 것이다.<sup>40)</sup> 世界는 먼저 가난한 多數者를 적어 누른다고 하는 不道德的인 목적을 爲해 富裕한 小數者가 맺은 世界的 同盟에 依해 統一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파시스트도 아니고 共產主義者도 아닌 다른 무언가의 색깔 밑에 세계를 統合하는 方法을 찾아내는 것이 젊은 世代가 하여야 할 課題이고 責任이라고 한다.<sup>41)</sup>

(2) 人類의 未來에 關하여 말하는 者는 토인비 이외에도 많다. 그리고 未來의 人類의 精神面에 對해서도 여러사람들이 論點을 달리고 있다.

쉬팽글러(Oswald Spengler)와 같은 者는 다니레프스키(Danilevsky)의 運命 未來觀을 좀더 學說的으로 具體化하여 西歐 知性界에 衝擊을 주었다. 쉬팽글러는 「西歐의 沒落」<sup>42)</sup>이란 著書의 名著를 1919년부터 發表함으로써 輪廻史觀을 크게 復活시키면서 民主主義의 世界化와 平和境을 꿈꾸던 <윌슨>의 樂觀論을 嘲笑하는 悲觀的 未來觀의 巨彈을 던졌는데 그는 <피테>의 흐름을 이어받아 역사를 「살아 있는 自然」으로 보는 思索에서 出發했다. 人類史에서 生命體와 같은 生의 過程을 갖는 單位는 「文明體」이며 그는 8個의 文明體를 發見하고 코페르니크스적 세

38) Ibid., P. 231.

39) Ibid., PP. 240~241.

40) Ibid., P. 286.

41) Ibid., P. 287.

42) Oswald Spengler: The Decline of the west.

李元錫著 「革命時代의 未來觀」 미네르바社 1971. PP. 55~56.

見解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 文明體의 根本을 이루는 것을 「일」로 봤다. 한 文化가 어떤 段階까지 成長하면 「일」을 誕生하여 自身을 意識하고 內省하며 具現하려는 精神을 所有한다.

이 일은 초기에는 活力이 있고 自己 具體化를 爲하여 創造의 活動을 하지만 時間이 갈수록 점차 成熟한 後 老衰하여 結局 死滅한다고 한다. 그래서 <쉬팽글러>에 의하면 20세기의 西歐文明은 最終段階에 到達했다<sup>43)</sup>고 하는 悲觀論을 폈다.

20世紀 聖者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도 1923년에 쓴 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문명 파괴의 증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고 實存哲學者 <야스퍼스>(Karl Jaspers)도 「입박한 沒落의 느낌이 심각해가고 있다」는 말을 했다.

宗教思想에 있어서도 新正統主義(New-orthodoxy)가 힘있게 일어나는데 그 代表적 神學者 <발트>(Karl Barth)는 時代적 危機를 「人本中心文明」에 對한 하나님의 定罪이라고 했다.

<헉스리>(Aldous Huxley)는 1932년에 「勇敢한 새 世界」(Brave New World)를 출판하여 600年 後의 세계를 그리는데 人間의 生産, 養育, 教育이 全部 機械적으로 行하게 되고 感情을 極少化 시키는 等으로 人間의 非人間化를 豫想했다. 이들 人間에게는 感情이 없을 뿐만 아니라 思想도 없다. 모든 發明에 依한 科學적 發展이 人間의 機械化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우리 人類에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招來할 可能性이 더 많다고 하고 있다.<sup>44)</sup>

이상은 未來의 人類가 共同體를 形成하였을 때도 그것은 不幸을 招來할 것이라고 보는데 對하여 다음 몇몇 人들은 그 反對의 立場에서 樂觀論을 펴고 있다.

英國의 碩學 <러셀>(Bertrand Russell)은 <Has Man a Future?>란 著書를 通하여 現代의 混亂相이 歷史의 終幕이나 새 序幕이냐는 質問을 던지고 人類가 核戰爭을 막고 이 地球上에 存續할 수 있는 活路는 世界政府를 樹立하고 새 秩序를 確立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5)</sup> 世界政府의 樹立은 武力統一에 依해서가 아니라 合議에 依한 것이라야 한다. 平和統一의 方法은 知性人들이 非合理的 反知性的 潮流에 對하여 옛날의 好戰적 思考를 撇어버리고 支配慾 대신에 平等을, 勝利慾 대신에 正義를, 殘忍性 대신에 協同을 各各 代置시키지 않으면 안된다.<sup>46)</sup> 半神的 人物 全體主義的 國家權力 앞에 屈하지 말고 抗拒할 줄 알면서도 他民族도 사랑하는 人類愛를 지니는 知性人들에게 未來의 運命은 달려 있다. 이런 知性人의 精神은 合理的 휴머니즘이다.

43) Ibid., P. 61.

44) Ibid., P. 75.

45) Bertrand Russell, Has man a Future, Batimore: Penguin Books, 1967, PP. 27~50.

46) 버트런트러셀 「變化하는 世界를 爲한 哲理的 合理性」 에드린 코크編, 現代人의 將來 朴甲成, 金容模譯, 서울創文社.

合理的 휴머니즘을 지닌 知性人이 되는 비결은 <스피노자>에 依하면 모든 事象을 「永遠의 모습 아래서」 보라는 態度에 있음을 상기 시켰다. 卽 現在の 고민을 이기려면 먼 앞날의 希望을 바라보고 사는 叡智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知性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의 苦痛도 人類의 歷史에 比해서는 한날 스쳐가는 一瞬間에 不過한 것으로 본다. 이런 未來志向性을 가지면 勇氣, 希望, 創造性的 衝動, 不屈의 精神이 생긴다.<sup>47)</sup> 이런 合理的 휴머니즘은 世界市民精神과 直結되는데 그런 사람의 數가 많아지는데서 世界政府의 實現可能性이 많아진다는 主張은 토인비의 主張과 비슷하다. 이 外에도 <야스퍼스>(Karl Jaspus)는 「새로운 휴머니즘」에다 희망을 걸었고 美國의 心理分析的 哲學者 <에리크 프롬>(Erich Fromm)은 「희망의 革命」(The Revolution of Hope)이란 著書에서 知性人들의 合理的 說得力에 期待를 거는 啓蒙主義的 傳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美國의 化學者 生化學者 平和運動家로서 1954年 「노벨」賞을 받은 <포우링>(Linrcs Pouling)도 같은 合理主義的 立場을 取하여 未來의 모든 強國들이 理性을 되찾고 國際的 機構下에 核武器를 둠으로써 監視와 統制를 可能케 하여 人類의 活路를 打開할 수 있다고 力說하고 있다.<sup>48)</sup>

이런 合理的 휴머니즘에 依한 未來의 打開를 主張하는 者들 外에 宇宙進化論的 樂觀論을 펴는 者가 있다. <쥬리안, 헉스리>(Sir Julian Huxley)는 「啓示없는 宗教」(Religion Without Revelation)에서 生物學的 史觀(biological historicism)을 펴고 있다. 그래서 그는 世界政府의 出現을 豫見한다. 새 世界文明의 秩序를 擔當할 政治勢力의 集結體가 나와 計劃經濟 社會福祉政策等을 遂行할 것으로 봤다.

이 世界政府의 根幹이 될 새 精神體制(idea system)로는 「進化적 휴머니즘」(evolutionary humanism)을 提唱한다.<sup>49)</sup>

이 外에 할로웰(John H. Hallowell)은 그가 쓴 「現代 政治思想의 源流」(Main Currents in Modern Political Thought)에서 기독교 傳統信仰을 土臺로 問題의 核心을 파헤칠려고 하고 있으며 영국의 史家 <도우슨>(Christopher Dawson)도 그의 著書 「世界史의 다이내믹」(The Dynamics of World History)에서 歷史의 求心點을 그리스도의 成肉身(Incarnation)에 두고 있다.

이런 宗教的 觀念 當爲論을 떠나서 좀더 歷史的 事實과 社會的 現實을 土臺로 바랍직한 來日을 創造하려는 새 學派가 대두했는데 모든 變化는 어떤 必然法則에 依해서가 아니라 人間의 創意에 依한 未來革新(innovation)이 未知의 세계로 도약하려는 모험과 意志에 依한다는 것으로써 미국의 社會學者 <벨>(Daniel Bell)과 같은 이는 「이데올로기의 終焉」

47) Ibid., PP. 228~236.

48) 李元高 著 「革命時代의 未來觀」 미네르바社 1971. P. 155.

49) Ibid., P. 159.

(The End of Ideology)이란 冊에서, <드라카>(Peter. F. Drucker)와 같은이는 「내일의 경제 표(Landmarks of Tomorrow)란 冊에서 新世界의 出現을 人間의 精神界에서 찾고 있다.<sup>50)</sup>全體를 部分의 總和로 생각한데 칼트의 分析哲學을 떠나서 세계를 統一된 秩序理念으로 보고 그 목적을 찾는 努力에 依하여 革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Ⅵ 未來의 새 共同体가 하여야 할 일

### (1) 새로운 價値判斷

科學 技術의 發達은 選擇의 範圍를 擴大시키고 그 選擇의 基準을 애매 모호하게 하였다. 選擇이 可能한 狀況 속에서는 選擇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選擇의 對象이 우리 人間의 目標과 有關한 것일 때에는 選擇決定에 道德的 責任이 따르게 된다. 確實히 科學技術의 發達은 智的인 所産으로서 그 自體가 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智的인 所産을 利用하게 될 때 그것은 確實히 必然的으로 善惡의 兩者中 어느 하나가 될 것이다' 即 어느 小數人의 私利私慾을 爲하여 利用될 수도 있으며 政治的 威信을 높이기 爲해서 利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 反面 社會的으로 보다 가치있는 일을 爲해서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社會的 가치」란 人間의 복지와 幸福의 增進으로 측정할 수 있는 性質의 對象을 말한다.<sup>51)</sup> 이러한 基準에서 어느 小數人의 利益만을 爲하는 政治體制를 選擇해서는 안될 것이며 많이 생기는 時間적 여유로 因하여 人間에게 害로운 快樂追求의 길을 擇하여 人類에게 有害한 風潮를 불어 넣는 것도 惡이라고 判斷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科學技術의 發達이 惡用될 念慮가 있다 할 때 社會倫理性이 빛을 잃게 되고 人類本然의 목적을 잃고 逆機能의 弊害 即 小數人의 利用物이 되고 多數人들은 小數人의 利用道具인 科學技術의 奴隸가 될 念慮가 있다 할 때 善惡價値 判斷의 基準은 이를 지키는 問題가 더 힘들고 또한 重要하다. 그래서 未來의 새로운 社會變動에 따라 從來의 倫理的 觀습을 고쳐 나가야 한다. 永續적이고 眞正한 平和에 필요한 것은 人類의 政治的 組織의 改善이며 세계적인 精神革命의 結果로써만 達成될 수 있다.

### (2) 個人과 共同体間에 있어서의 自己中心의 克服問題(精神革命 문제)

토인비에 依하면 세계국가 建設의 必須的 條件을 둘로 보는데 그 첫째 條件은 어떠한 形態의

50) 피터 F. 드라카 革新의 理念 柳浩善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61. PP. 16~37.

51) A. J. Toynbee: Surviving the Future. 金宇鍾譯 「續未來를 산다」 P. 70

組織이 필요한가이고, 그 둘째는 精神革命이라고 한다.<sup>52)</sup> 세계국가의 形態는 세계에 있는 모든 主權獨立 국가를 하나로 뭉쳐 世界聯邦을 만드는 것이요, 이는 絕對不可能한 問題는 아니다. 美國이나 스위스 등이 하나의 예이다.

그러나 精神革命의 問題는 그리 容易한 問題는 아니다. 思考의 혁신은 「改心」을 同伴하지 않는다면 實質의인 意味를 지닌 成果를 올릴 수 없다. 即 思考의 혁신은 行動을 통해 實際로 表示되지 않은 限 아무런 效果도 없기 때문에 行動의 前過程인 心理的 準備로서의 「改心」의 段階가 필요한 것이다. 「改心」이란 토인비에 依하면 自己自身の 눈앞에 있는 私利私慾을 버리고 보다 넓은 利益을 우선 시키도록 人間을 이끌어 가는 意志의 變身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sup>53)</sup> 예수는 일컬어 말씀하시되 自己生命을 求하려는 者는 그것을 잃을 것이며 自己 목숨을 기꺼히 버리겠다는 사람은 救援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結局 自己自身の 利益인 보다 넓은 利益을 爲한다는 것을 認識한다는 것은 智的 作業인데 이 智的 作業을 爲해서는 精神姿勢를 轉換시켜 自身の 主觀에만 執着하지 말고 客觀化하며 私利私慾을 버려야 한다.

### (3) 核문제, 公害問題, 人口문제

人類는 새로운 共同體에 依하여 核問題, 公害問題, 人口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前代末國의 大災難을 치루어야 할 危機에 直面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직도 世界 第三次大戰을 避할 수 있다는 確證은 없으며 三次 世界大戰이 일어나면 人類는 核兵器에 依해 全滅될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비록 核戰爭을 避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천천히 그러나 어김없는 걸음 걸이로 人類에게 다가드는 公害의 먹구름은 뒤덮혀 이 地球는 永遠히 人間 不在의 폐허로 轉落할 危險마저 있는 것이다.<sup>54)</sup> 實事 公害의 危害에서 헤어난다 하더라도 現在 地表上에서 急速히 發火點으로 치달고 있어 人口爆發을 事前에 抑制하지 못한다면 人類는 滅亡할 수도 있다.

### (4) 젊은 世代에 對한 期待

現在의 젊은 世代는 우연히도 人類歷史의 轉換點에 살고 있는데 이 젊은 世代에게는 重大하고 唯一한 機會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全 生涯를 통해서 青年의 精神 一 即 너그러움, 變化에의 適應, 理想主義, 公平 無私의 精神一을 갖는데 成功하지 못한다

52) Ibid., P. 112.

53) Ibid., P. 114.

54) Ibid., P. 117.



던 이 機會를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sup>55)</sup> 젊은 세대의 進路는 理想에 依하여 빛나고 있는데 이 빛을 흐리게 하는 現實인 敵에 對하여 증오하지 말고 사랑으로 同情하고 理解하여 理想을 가로막는 原因부터 또 그 原因의 原因부터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하여 忍耐와 無抵抗의 鬭爭의 繼續이라야 하며 暴力은 絶對 금물이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 일으켜 獨裁出現의 觸媒가 된다.

## VII 結 論

急變하는 現代에 사는 人類는 不安하다. 科學技術의 無限한 發達은 人類를 幸福으로 引導할 수도 있지만 全滅 시킬 수도 있다. 原子 科學의 發達은 核 爆彈의 魔力을 創出했고 其他 科學技術의 發達結果는 公害의 危險을 招來케 하여 人類의 生命을 위협하고 있다. 그 럼에도 不拘하고 人類는 더욱이 科學技術의 發達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 努力自體는 非難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 科學技術의 發達을 利用하느냐가 問題이다. 人間은 神과 動物의 中間의 存在라고도 하고 神과 惡魔의 中間의 存在라고도 한다. 어쨌든 人間은 理性과 感性의 所有者로 兩面的 存在임이 틀림없다. 感性에 對한 理性의 勝利로 人類에 對한 福祉社會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理性이 勝利하리라는 保障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確證的 保障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 人類가 絶滅을 自招할 것인가? 이에 對해서는 否定的 見解를 取하는 立場으로써 <콘라드 로렌스>(Conrad Lorence) 博士의 著作中에 發見되는 脊椎 動物의 同族 保存 本能을 생각할 수 있다.<sup>56)</sup> 即 이에 依하면 脊椎動物은 本能的으로 同族을 保存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前提下에 未來를 예측할 때 未來豫測의 問題는 어떻게 할 것인가? 人間自體가 想像의 動物로써 科學技術이 繼續 發達될 것이고, 國家의 未來志向의 發展의 政策이 一貫되며, 國際機構의 地域協助等 뿐만 아니라 컴퓨터等 科學技術의 힘을 빌어 未來豫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未來豫測을 해 볼 때 未來의 人類는 自身の 死滅을 막고 生殘하기 爲해서 相互 互讓하여 새로운 共同体인 世界國家形態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 세계국가는 가치관과 理念을 超越하는 精神革命이 先決되어야 하며 地域統合과 같은 過渡期的 共同體의 形態를 거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形態는 聯邦國家의 形態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국가는 繼續 價値觀의 再確立, 公益 優先等的 정신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未來의 課題가 未來의 世 共同體를 構成할 젊은이들에게 부과된 使命이며 責任이다. 젊은이는 暴力에 依해서가 아니라 정신혁명적 方法에 依해서 이 使命을 完遂해 나가야 할 것이다.]

55) A. J. Toynbee 「Surviving the Future」 金字鐘譯P. 298.

56) Louis J. Halle: 「Lessons of the nuclear age」 Japan America Forum, Vol.14, no. 12, 1968. PP. 4~5

## Summary

# Study on The New Community Through The Futurology

Cho, Moon-Boo

The study on the futurology will help to decrease the uneasiness for the future of mankind to future intention. And it also will have to forecast the future for establishing the vision of a state.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forecast the future of the years 2,000 after about 30 years from now, and to consider what type human being will accomplish his social organization on and what its function will be then.

And then, there will be some questions how to forecast the future. For this, we can forecast the future by concentration of human imagenative power and by expectation of the result of all sorts of human efforts.

In this way, when we forecast the future of mankind, the human beings of the future will, more or less, have to make a concession each other their view of value and their ideology, etc, for their own surviving, and try to construct an unity world. In this process, past the type of a regional unification, a community in a transition period, the world state will be constructed in the type of the world federal state.

But there will be a potentiality to be a dictatorship type of ruling by the minority. So we shall make a defense against it. and it will be expected a special part of youth.